문화동반자 20년 사업 성과 분석 및 한류 교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사업 방향 조사 요약 보고서

2025.12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이용자를 위하여

- 본 보고서는 〈문화동반자 20년 사업 성과 분석 및 한류 교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방향 조사〉 용역의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로, 지난 문화동반자 사업(2005~2024년)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기재함
  - 세부 결과는 전체 보고서에 기재함

- 응답자 특성별 교차분석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셀의 표본크기가 30명 미만으로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됨

- 통계자료의 숫자는 소수점 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합계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자료 중 복수 응답 문항은 응답 백분비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통계자료 중 순위형 결과(차트, 표)는 1+2+3순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함

-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조사 대상자가 없음
  - [0] 조사 결괏값이 0이거나 0의 근삿값인 경우

- 본 보고서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국제협력팀(02-3150-4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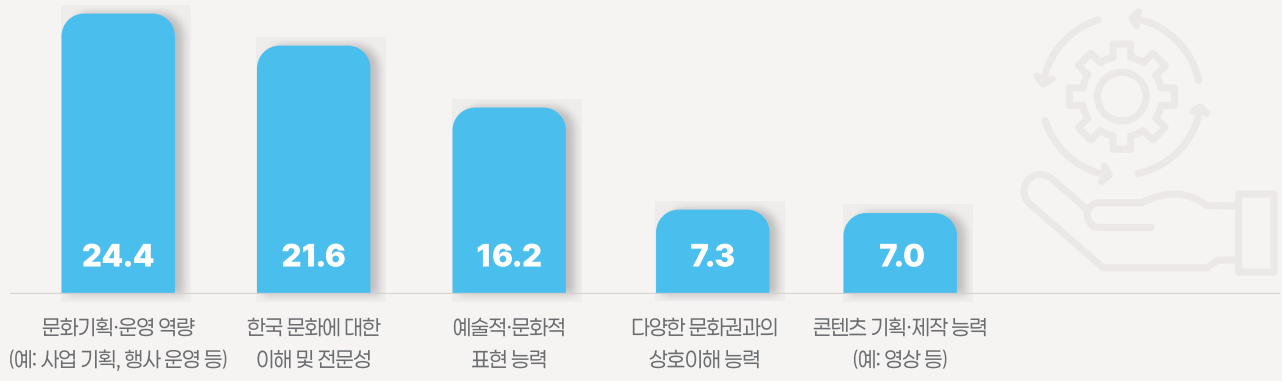
문화동반자 20년 사업 성과 분석 및 한류 교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방향 조사

조사대상 KOFICE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자(2005~2024)
조사방법 이메일을 통한 웹조사
표본크기 328명(조사 대상의 21.8% 응답)

1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이후 변화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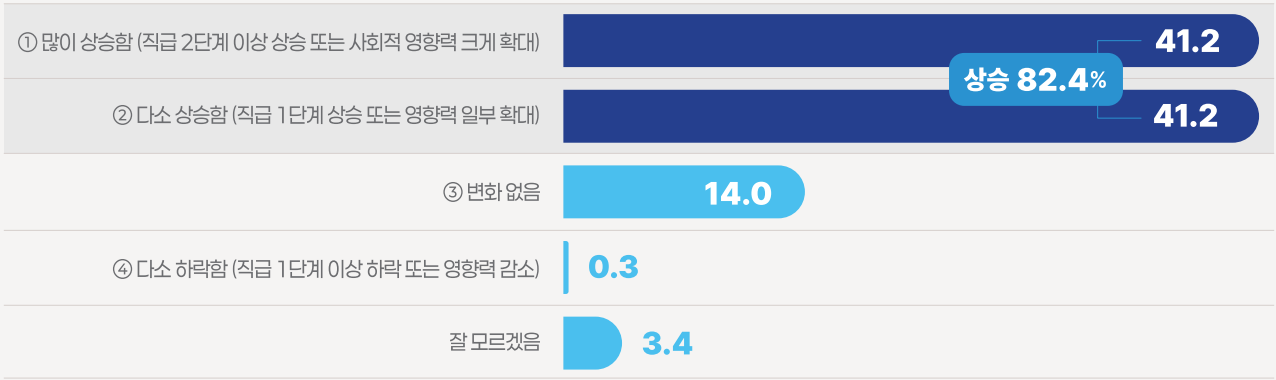
문화동반자 사업 이후 변화·발전 요소(1순위, 상위 5위)

(n=328, 단위:%)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이후 사회적 지위 변화 여부

(n=328, 단위:%)



사회적 변화에 미친 긍정적 영향 정도

(n=270, 단위:%)



사업 참여 전반적 만족도

(n=317,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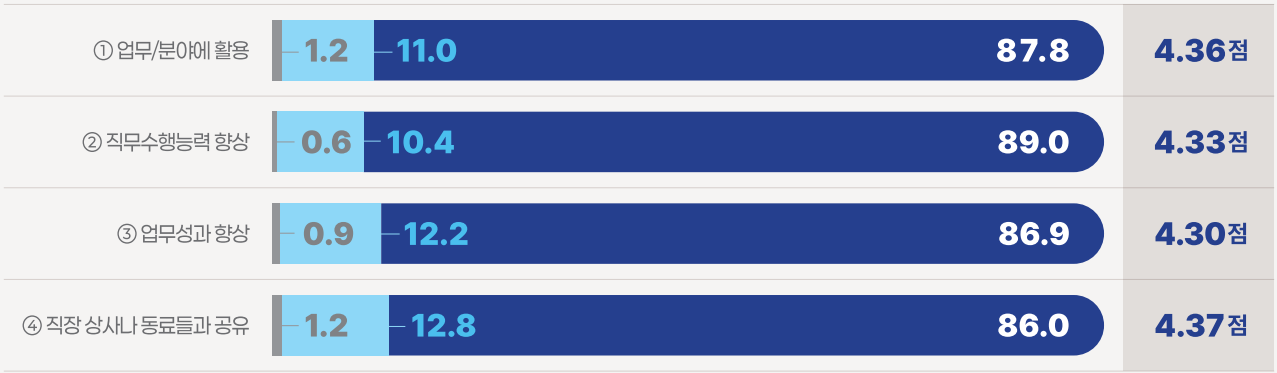


2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이후 성과

문화동반자 사업 내용의 현업 적용 정도

(n=328, 단위:%)

● 적용 안함 ● 보통 ● 적용함 척도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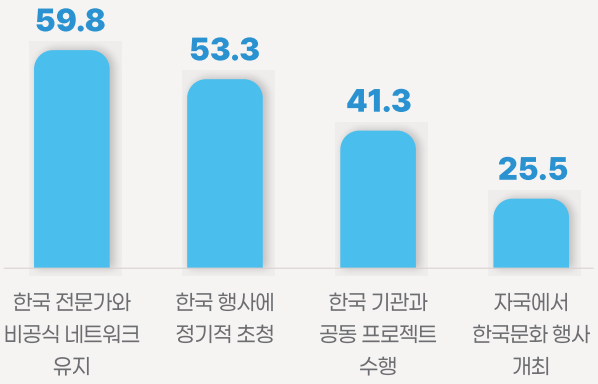
귀국 후 문화 관련 사업 활동 경험 유무

	대표문화 활동	한국교류활동	참여자간 교류 활동
	70.4%	43.9%	34.1%
전체 건 수	1,373건	427건	349건
사업 활동 평균 건수	5.9건	3.0건	3.1건
활동 국가 (%)	그 외 28.2, 한국 11.9, 자국 59.9	그 외 15.7, 한국 40.0, 자국 44.3	그 외 32.1, 한국 12.0, 자국 55.9
활동 분야 상위 3위 (%, 복수 응답)	1 무용 18.9, 2 음악 15.1, 3 전통예술 14.7	1 전통예술 18.5, 2 음악 15.2, 3 무용 14.3	1 전통예술 26.4, 2 무용 16.0, 3 음악 13.5
활동 형태 상위 3위 (%)	1 창작 18.9, 2 기획 15.1, 3 연수 14.7	1 창작 33.7, 2 교류 22.5, 3 연수 14.3	1 창작 37.5, 2 연수 17.8, 3 교류 17.5

3 한류 교류 현황 및 네트워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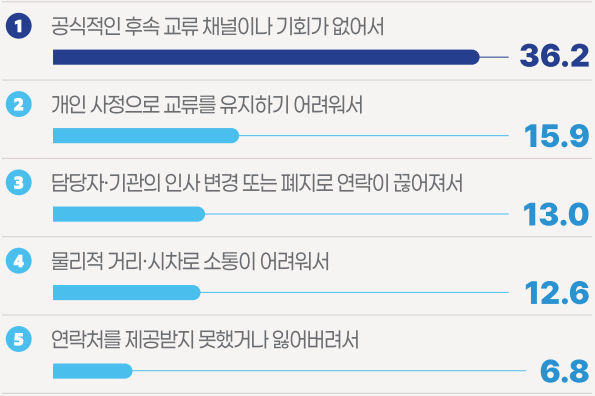
한국 내 문화 관련 기관/담당자와의 교류 형태(복수 응답)

(n=25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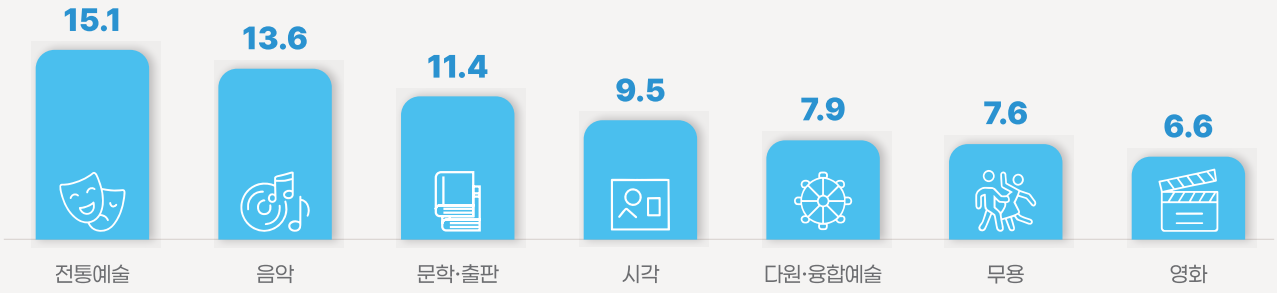
한국 내 문화 관련 기관/담당자와의 교류 없는 이유(상위 5위)

(n=20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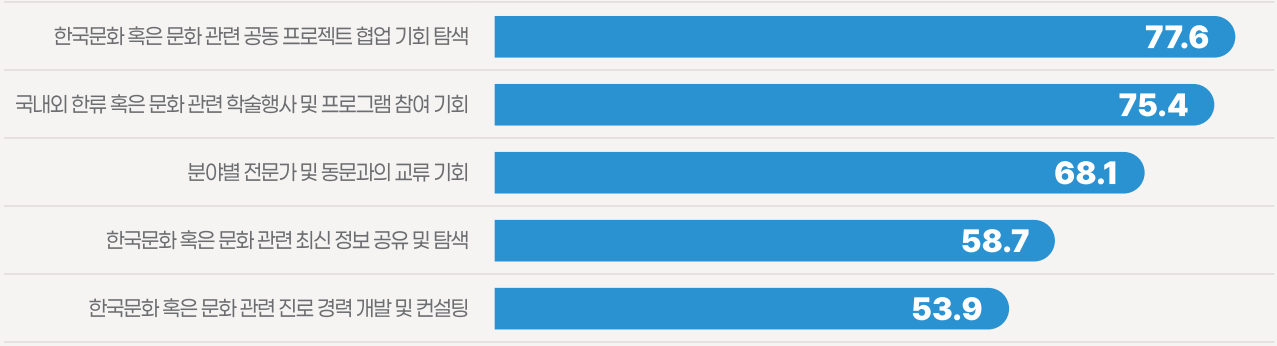
한국문화 교류 관련 관심 분야(1순위, 상위 7위)

(n=317,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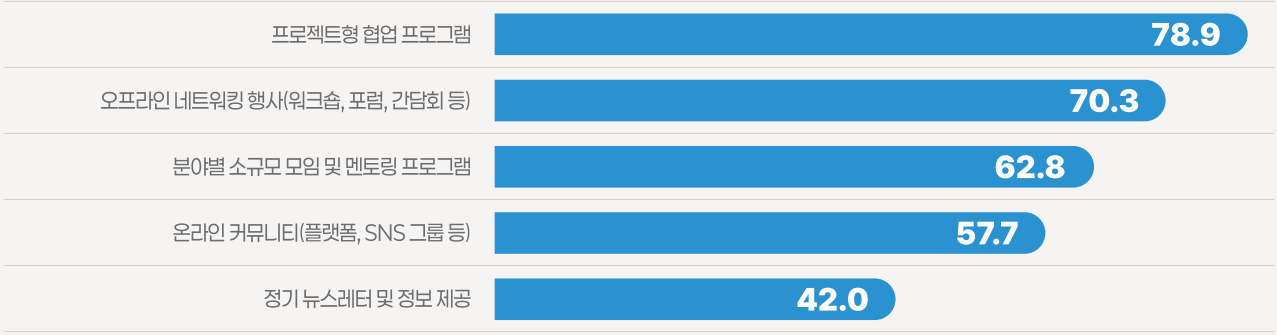
한국문화 관련 희망 교류 내용(복수응답)

(n=317, 단위:%)



문화 교류 네트워크 구축 시 선호 방식(복수 응답)

(n=317, 단위:%)



목 차

문화동반자 20년 사업 성과 분석 및
한류 교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방향 조사

제1장 조사 개요 ····· 01

1. 과업 추진 배경 및 목적 ····· 03
2. 조사 설계 ····· 05
3. 조사 항목 ····· 05
4. 사업 참여자 현황 ····· 06
5. 조사 응답자 현황 ····· 08

제2장 주요 결과 요약 ····· 09

1.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이후 변화 ····· 11
2.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이후 성과 활동 ····· 14
3. 문화동반자 사업 만족도 ····· 24
4. 한류 교류 현황 및 네트워크 방향 ····· 25

제3장 시사점 ····· 31

1. 결론 및 시사점 ····· 33

제1장

조사 개요

1. 과업 추진 배경 및 목적

1.1. 추진 배경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이하 진흥원)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문화예술 산업 분야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특히, 2005년 시작된 〈문화동반자 사업〉은 초청 연수, 문화·교육 교류 등을 통해 참가국의 문화 기반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이행에 기여함

진흥원은 2005~2020년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2021년 시범 조사를 시행하여 사업 참여자 프로파일과 연수 이후 활동 현황을 파악한 바 있음. 그러나 시범 조사는 활동 건수 중심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성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으며, 변화한 최신 흐름과 참여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추가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또한, 2025년부터 문화동반자 사업이 〈한류 교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기존 사업 성과의 정밀한 재분석과 새로운 사업 설계에 활용 가능한 기반 자료 마련이 필요해짐. 이에 따라 2025년 조사에서는 시범 조사 이후 축적된 실태를 통합적으로 재정비하고, 참여자의 성과와 협력 네트워크 기반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함

1.2. 조사 목적

본 조사는 2005년부터 2024년까지 문화동반자 사업에 참여한 연수생의 기본 현황과 연수 이후 활동을 정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향후 〈한류 교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사업〉 및 유사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참고] 문화동반자 사업개요

문화동반자 사업이란? (개편 전)

문화동반자 사업은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활동 중인 문화전문가, 문화행정가를 중심으로 문화 전문인력의 개인 인적 역량 강화와 개발도상국의 문화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진행해오고 있는 무상원조 사업임

① **문화전문가 연수(2005~2024)**: 분야별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문화기관이 운영(5~6주)
② **문화행정가 연수(2020~2024)**: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자체 운영(약 2주)
→ 온라인 사전연수와 오프라인 국내 초청 연수 혼합형 연수 시스템으로 운영함
→ 연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아래 후속 사업도 진행함
③ 문화동반자 동창회: 역대 참가 연수생 간 정보·교류 기회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2020~2024 온라인 운영
④ 후속 프로젝트: 연수생 자국 문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가 온라인 컨설팅, 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한류 교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란? (개편 후)

2005년부터 무상원조 사업에서 벗어나 **일반 국제문화교류 사업으로 개편함**
기존의 개발도상국 문화예술인 대상에서 국가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 세계로 범위를 확장하여, 각국의 문화산업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류에 대한 호감도를 제고하며, 글로벌 지한파 전문가를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

2025년에는 파일럿 형태로, 기존 문화동반자 연수 형식을 일부 반영하여 시각예술·공연예술 분야의 중간급 실무자를 초청하고, ▲공동 협력 프로젝트 도출 ▲전문성 강화, ▲네트워크 구축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흥원이 주관하여 운영

(참고) 문화동반자 – 한류 교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사업 비교표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사업형태	무상원조사업	국제문화교류사업
목적	협력국 문화예술 전문가 역량 강화 및 경제 개발 기반 마련	국제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 지한파 배출
대상	개발협력국 문화예술인	전 세계 문화예술인
추진방식	운영기관 공모·선정 운영	진흥원 직접 추진
프로그램	▲사업계획 도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 ▲포럼 (네트워킹) 등 → 본국에서 활용 가능한 사업계획 도출을 통한 역량 강화	▲공동 프로젝트 워크숍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라운드테이블) ▲포럼 및 네트워킹 등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 강화
기타	▲온라인 동창회 ▲후속지원 프로그램 등 → 개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후속 사업 연계 진행	▲현지 동창회 개최(문화동반자 누적 참여자 대상) ▲통합 온라인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등 → 기존 문화동반자 사업의 네트워크 지속 유지를 위한 후속관리

2.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2005년부터 2024년까지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자
모집단 규모	1,507명 (1,539명 중 중복 및 연락처 없는 경우 삭제)
유효 표본	328명(응답률: 21.8%)
조사 시기	2025년 10월 1일(수) ~ 2025년 11월 20일(목)
자료 수집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이메일)

3. 조사 항목

구분	조사항목
응답자 프로파일(DB)	• 국적, 활동 국가, 성별, 출생 연도 • 이메일 주소(주/보조), 연락처(번호), SNS, 소속 기관, 활동 분야, 직위 등
1) 문화동반자 사업 연수 성과	• 사업 참여 이유 • 사업 참여 이후의 전문성 변화/발전 • 사업 참여 전 연수 목표 달성 정도
2) 한국 및 동료와의 교류 성과	• 한국 내 문화 관련 기관/담당자와의 네트워크 활용도 현황 • 다른 참가들과의 네트워크 활용도 현황
3) 단기 영향력 및 현업 적용도	• 사업 내용의 현업 적용 정도 및 요인
4) 참여 이후 활동 성과	• 현 종사 분야 • 사업 참여 전 대비 사회적 지위 변화 • 문화 관련 사업/활동 진행 현황 • 첫 대표문화/한국교류 활동 • 사업 내용이나 경험의 업무/활동 적용 사례(오픈 응답)
5) 문화동반자 사업 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 / 세부 만족도 • 프로그램 참여 후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및 감정 변화 • 향후 한국과의 협력/교류 활동 참여 의향 여부 • 사업의 필요성
6) 사업 확대 · 개편 관련 의견	• 관심 분야 • 희망 네트워킹 내용 • 선호하는 문화 교류 네트워크 구축 방식 • 네트워크 프로그램 참여 필요 지원 • 사업에 대한 의견(오픈 응답)

4. 사업 참여자 현황

2005년부터 2024년까지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자는 총 1,539명으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06년도(142명)와 2007년도(127명)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고, 연평균 참여자 수는 77명으로 집계됨
- 여성 비중은 44.3%, 남성은 55.7%로 나타남(n=1,506, 정보 공란 제외)
- 2025년 기준 연령대는 20대(3.7%), 30대(31.1%), 40대(43.5%), 50대(17.8%), 60대 이상(3.9%)로 나타남(n=1,472, 정보 공란 제외)

연도별, 연수 유형별 참여 인원

연도	문화전문가 연수	문화행정가 연수	총합계
2005	57	-	57
2006	142	-	142
2007	127	-	127
2008	95	-	95
2009	74	-	74
2010	70	-	70
2011	73	-	73
2012	66	-	66
2013	72	-	72
2014	80	-	80
2015	70	-	70
2016	77	-	77
2017	76	-	76
2018	63	-	63
2019	60	-	60
2020	64	9	73
2021	50	18	68
2022	48	13	61
2023	48	20	68
2024	47	20	67
총합계	1,459	80	1,539

-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국은 총 106개국으로 아시아가 가장 많은 46개국 1,267명(82.3%)이 참여하였고, 아프리카가 그다음으로 많은 29개국 132명(8.6%)이 참여함
- 사업 참여자가 30명이 넘는 국가는 14개국으로, 베트남(181명), 몽골(175명), 필리핀(129명), 인도네시아(128명), 태국(73명), 라오스(66명), 캄보디아(61명), 우즈베키스탄(55명), 미얀마(52명), 인도(50명), 말레이시아(37명), 카자흐스탄(32명), 스리랑카(31명), 중국(30명) 순임

대륙별 참여국 및 참여자 수

대륙	국가 수	참여자 수	참여자 비율(%)
아시아/오세아니아/중동	45	1,267	**82.3%**
아프리카	29	132	**8.6%**
남미	9	62	**4.0%**
유럽	17	51	**3.3%**
북중미	6	27	**1.8%**
합계	**106**	**1,539**	**100.0%**

5. 조사 응답자 현황

본 조사는 1,539명 중 328명이 조사 완료하여, 응답률 21.8%를 달성함. 응답자 특성은 아래와 같음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328)	100.0%
연수 구분	문화전문가	(292)	89.0
	문화행정가	(36)	11.0
연수 참여 연도	2005-2009	(59)	18.0
	2010-2014	(63)	19.2
	2015-2019	(84)	25.6
	2020-2024	(122)	37.2
성별	남성	(162)	49.4
	여성	(166)	50.6
연령대	20대	(12)	3.7
	30대	(113)	34.5
	40대	(149)	45.4
	50대 이상	(54)	16.5
대륙	아시아	(251)	76.5
	아프리카	(33)	10.1
	남미	(19)	5.8
	북중미	(13)	4.0
	유럽	(12)	3.7

제2장

주요 결과 요약

1.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이후 변화

1.1. 역량개발 :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결정 이유 및 발전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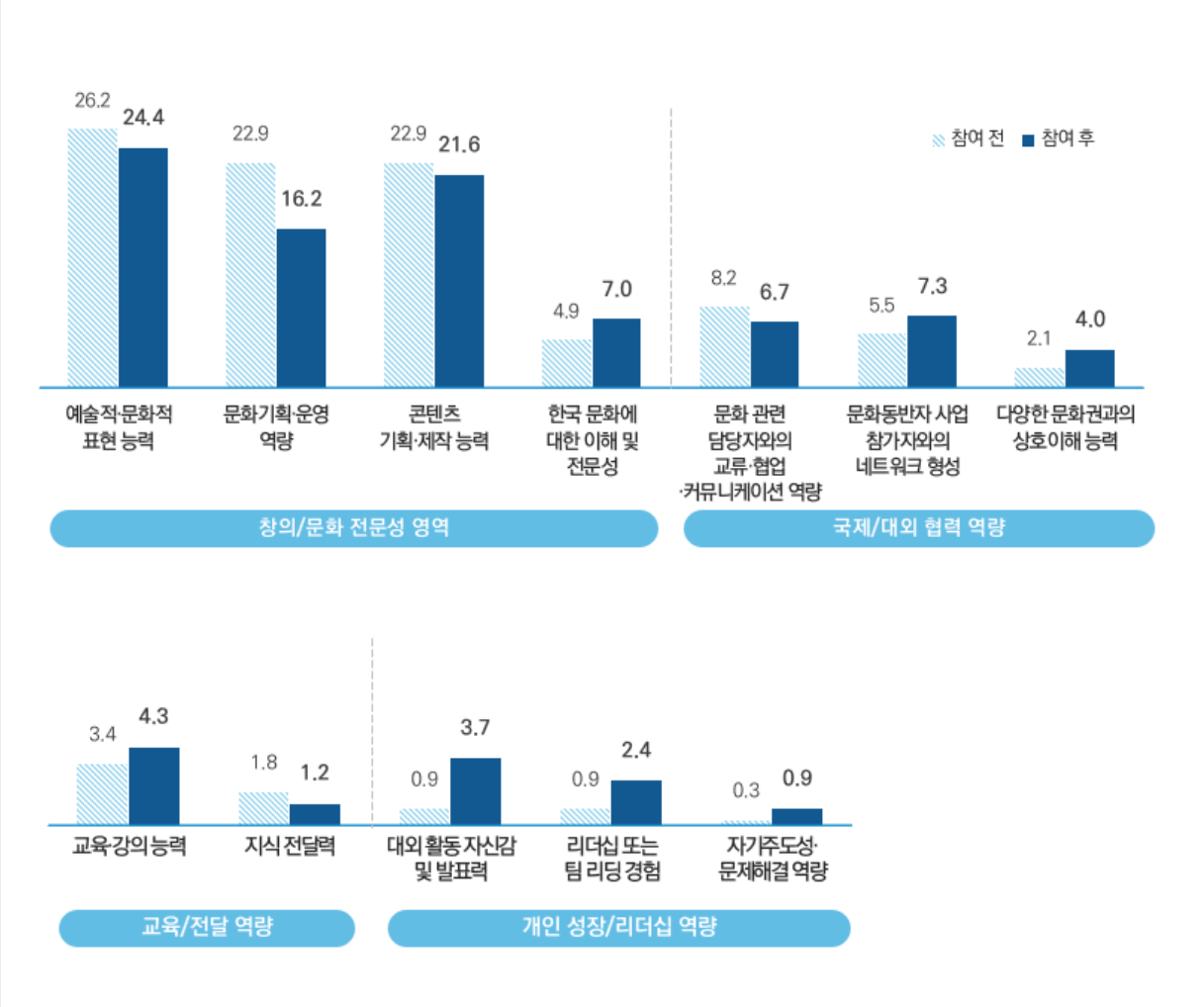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결정 이유와 발전 요소의 1~3순위는 모두 '창의/문화 전문성 영역'에 해당함

참여 결정 이유는 '예술적·문화적 표현 능력'(26.2%), '문화기획·운영 역량'(22.9%), '콘텐츠 기획·제작 능력'(22.9%) 순으로 나타남. 참여 이후 발전 요소의 상위 3순위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문화기획·운영 역량'의 효과가 기대 대비 소폭 하락함(6.7%p)

대체로 참여 전 기대 대비 참여 후 연수 효과 항목이 유사한 가운데, 참여 전 대비 '대외 활동 자신감 및 발표력'의 효과는 소폭 상승함(2.8%p)

[그림 II-1]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결정 이유 및 발전 요소

(대상: 전체(n=328), 단위: %, 1순위 기준)



*영역별 참여 전 이유 기준으로 내림차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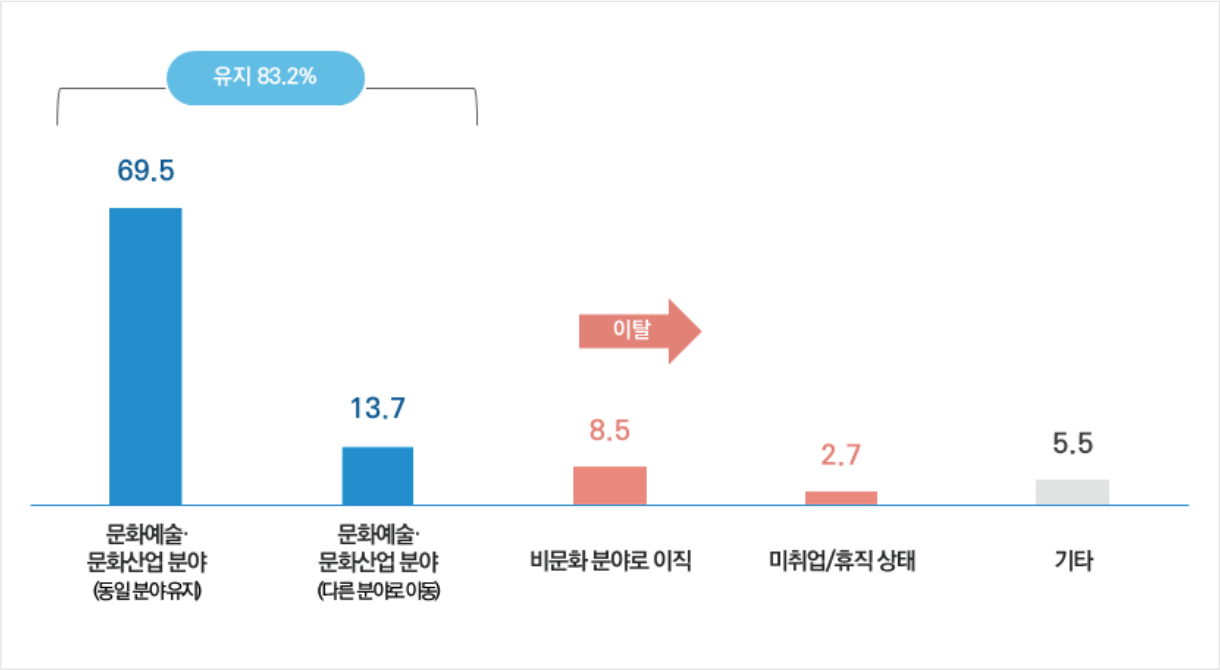
1.2. 지속성 : 문화분야 지속 종사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전후 **종사자의 분야는 '유지'(83.2%)되는 비중이 높으며**, 이중 동일 분야 유지하는 비율이 69.5%로 나타남

반면, '문화 분야에서 비문화 분야'로 이탈 비중은 8.5%로 나타났고, 현재 '미취업/휴직 상태'는 2.7%로 조사됨.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문화 분야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아짐

[그림Ⅱ-2]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이후 문화 분야 종사 현황

(대상: 전체(n=328), 단위: %)



〈표Ⅱ-1〉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이후 문화 분야 종사 현황

(Base: 전체(n=328), 단위: %)

구분		사례수	문화예술·문화산업 분야 (동일 분야 유지)	문화예술·문화산업 분야 (다른 분야로 이동)	비문화 분야로 이직	미취업/휴직 상태	기타
전체		**(328)**	**69.5**	**13.7**	**8.5**	**2.7**	**5.5**
성별	남성	(162)	65.4	17.9	9.3	2.5	4.9
	여성	(166)	73.5	9.6	7.8	3.0	6.0
연령대	20대	(12)	91.7	8.3	0.0	0.0	0.0
	30대	(113)	71.7	12.4	6.2	2.7	7.1
	40대	(149)	69.1	12.1	10.1	3.4	5.4
	50대 이상	(54)	61.1	22.2	11.1	1.9	3.7

1.3. 효과성 : 사회적 지위(직책, 인지도, 영향력 등)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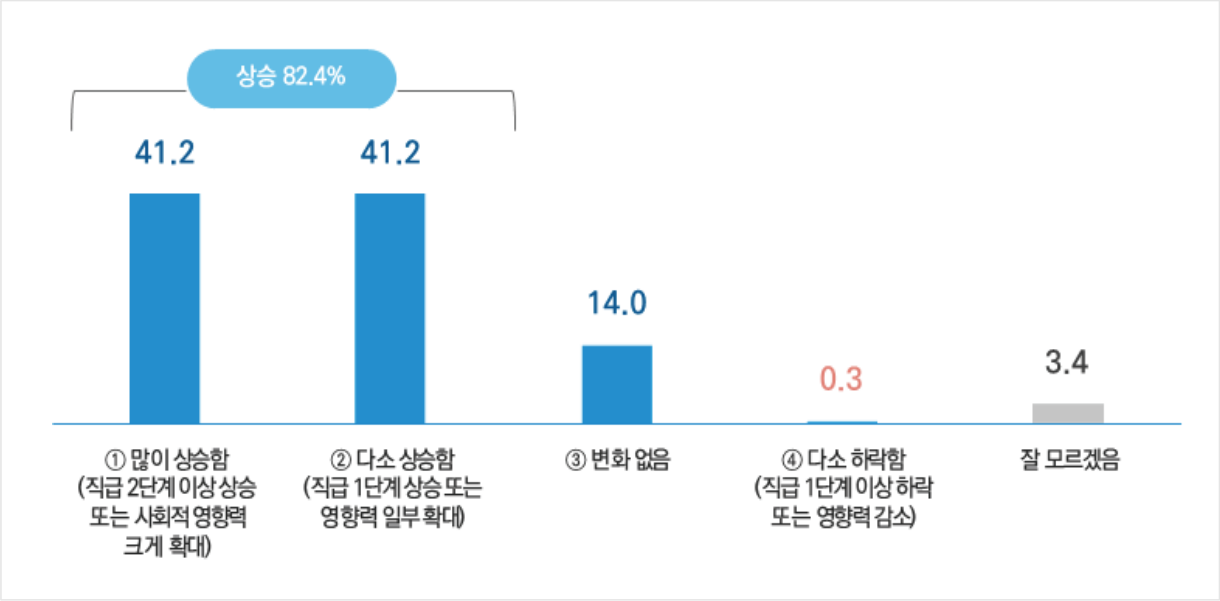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이후 **사회적 지위(직책, 인지도, 영향력 등)는 대체로 상승(82.4%)**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남성은 86.4%, 여성은 78.3% 상승하여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

문화동반자 사업이 사회적 지위 변화에 미친 긍정적 영향 정도는 93.0%로, 사회적 지위 변경 시기는 사업 참여 이후 '6개월 이내'가 44.1%, '6개월 ~ 1년 이내'가 25.6%로 조사됨

또한, 지위 변화에 해당하는 성과(복수 응답)로는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 주도·참여'(61.9%), '직위 승진(46.7%)', '정부나 기관의 초청/자문 요청 증가'(37.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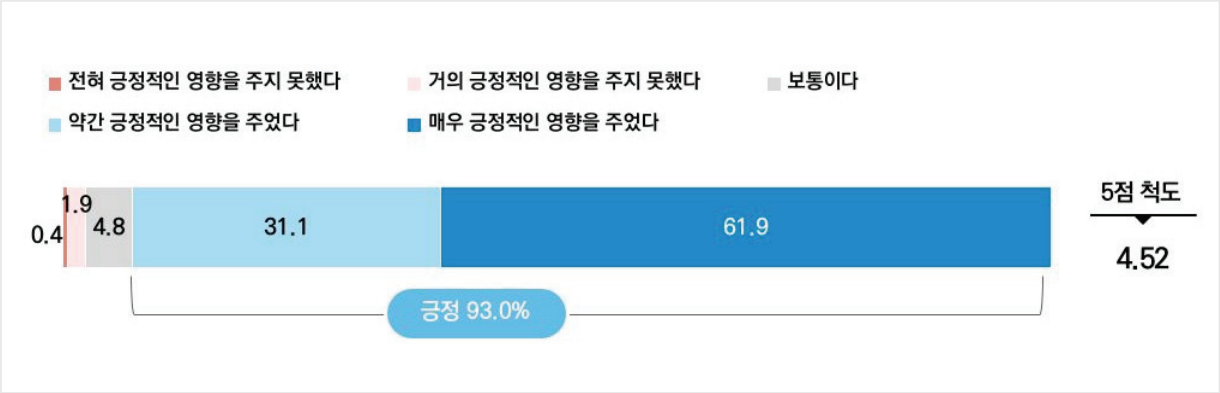
[그림Ⅱ-3]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이후 사회적 지위 변화 여부

(대상: 전체(n=328), 단위: %)



[그림Ⅱ-4] 문화동반자 사업이 사회적 지위 변화에 미친 긍정적 영향 정도

(대상: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참여자(n=240), 단위: %)



2.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이후 성과 활동

2.1. 성과 활동 경험 여부

성과 활동 유형에 대한 정의

대표문화 활동
응답자가 자국 또는 한국이나 그 외 국가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한 문화사업 및 문화활동

한국교류 활동
응답자가 한국의 문화기관이나 문화전문가와 수행한 일련의 모든 문화활동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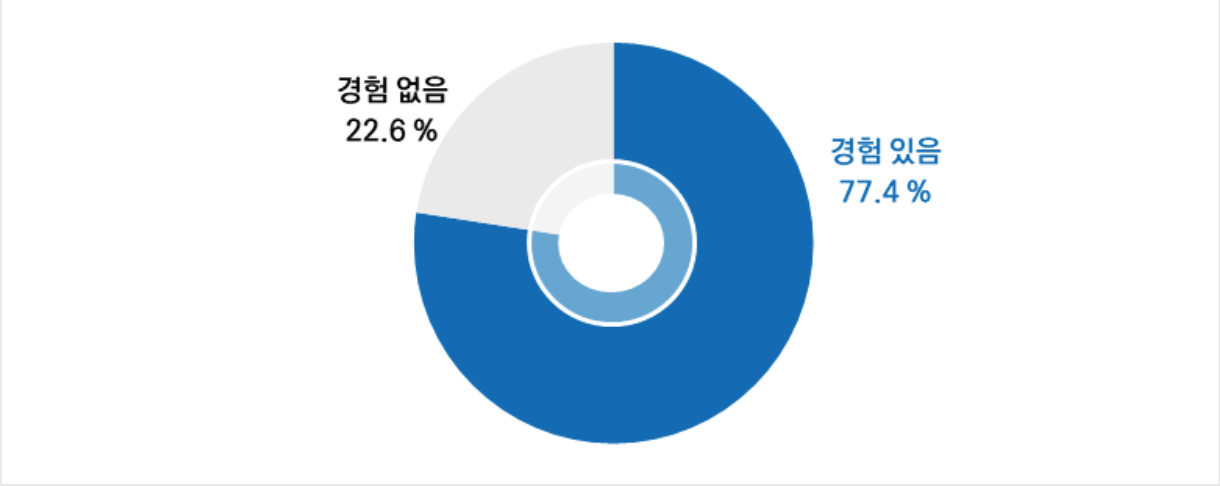
참여자 간 교류 활동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자 간 교류 및 협업 활동을 의미

전체 응답자(n=328)의 77.4%는 귀국 후 문화 관련 사업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응답자 중 문화전문가 연수 참여자는 78.8%, 문화행정가 연수 참여자는 66.7%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문화동반자 사업 연도별로는 2010년~2019년 참여자가 80%대로 활동을 많이 하는 편으로 조사됨

[그림 II-5] 귀국 후 문화 관련 사업 활동 경험 여부

(대상: 전체(n=3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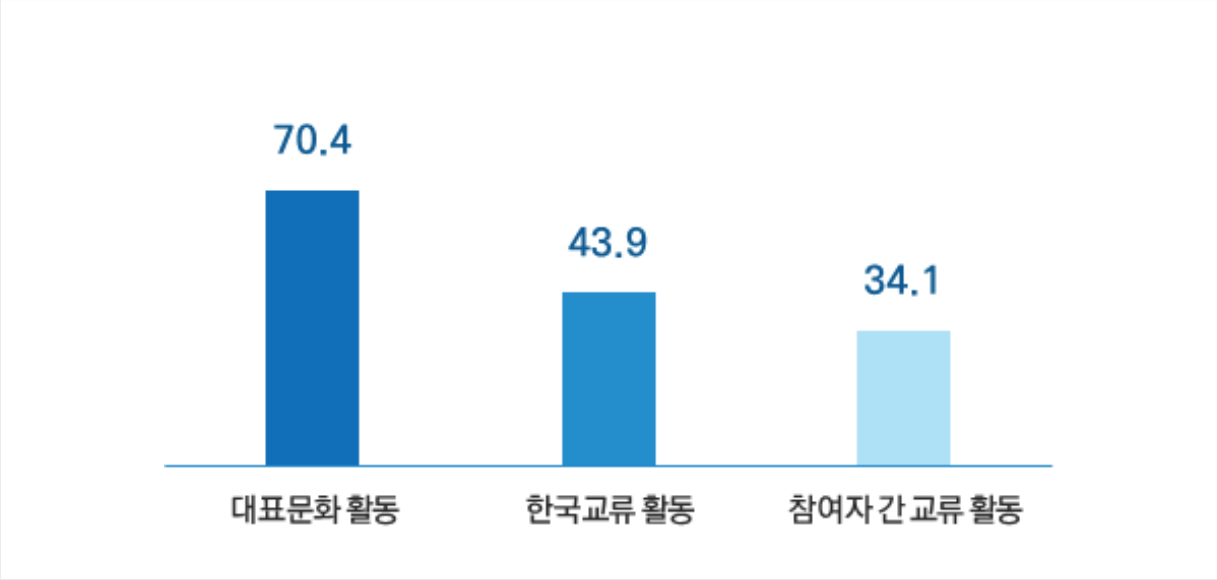


응답자의 70.4%는 '대표문화 활동'을 경험했고, 43.9%는 '한국교류 활동', 그리고 34.1%는 '참여자 간 교류 활동'을 경험함

'대표문화 활동'과 '한류교류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활동 수준은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Ⅱ-6] 유형별 성과 활동

(대상: 전체(n=328), 단위: %, 복수)



〈표Ⅱ-2〉 유형별 성과 활동

(Base: 전체(n=328), 단위: %, 복수)

구분		사례수	대표문화 활동	한류교류 활동	참여자 간 교류 활동
전체		**(328)**	**70.4**	**43.9**	**34.1**
연수 구분	문화전문가	(292)	71.9	45.5	36.0
	문화행정가	(36)	58.3	30.6	19.4
연수 참여 연도	2005-2009	(59)	67.8	49.2	25.4
	2010-2014	(63)	76.2	54.0	42.9
	2015-2019	(84)	75.0	42.9	34.5
	2020-2024	(122)	65.6	36.9	33.6
성별	남성	(162)	70.4	45.1	39.5
	여성	(166)	70.5	42.8	28.9
연령대	20대	(12)	75.0	50.0	50.0
	30대	(113)	69.0	37.2	32.7
	40대	(149)	71.8	46.3	32.9
	50대 이상	(54)	68.5	50.0	37.0

2.2. 성과 활동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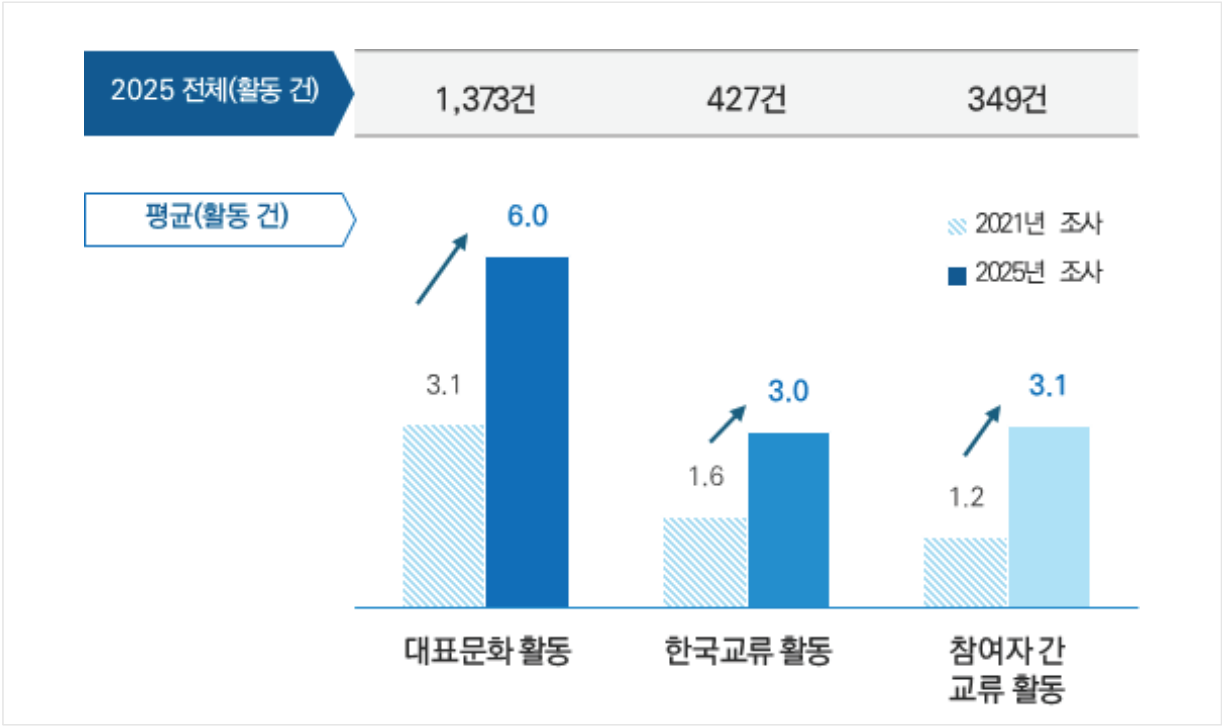
전체 성과

조사 응답자의 귀국 후 성과 활동은 총 2,149건으로 파악됨. 대표문화 활동(1,373건), 한국교류 활동(427건), 참여자 간 교류 활동(349건) 순임

2021년 시범 조사[1]와 비교 시 성과 활동자별 평균 건수는 약 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대표문화 활동은 평균 3.1건에서 6.0건으로, 한국교류 활동은 1.6건에서 3.0건으로, 참여자 간 교류 활동은 1.2건에서 3.1건으로 상승함

[그림Ⅱ-7] 유형별 성과 활동 발생 현황

(대상: 활동별 성과자, 단위: 평균(건), 활동(건))



〈표Ⅱ-3〉 유형별 성과 활동 발생 현황

(Base: 활동별 성과자, 단위: 건(복수), %)

구분		활동 전체(건)	활동자별 평균(건)	비중(%)
전체		**2,149**	**-**	**100.0**
대표문화 활동	(n=231)	1,373	6.0	63.9%
한국교류 활동	(n=144)	427	3.0	19.9%
참여자 간 교류 활동	(n=112)	349	3.1	16.2%

1) 2021년 시범 조사는 성과 활동자 대상으로만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대표문화 활동 응답자 278명, 한국교류 활동 응답자 238명, 귀국 후 연수생 간 교류 활동 응답자 261명으로 진행됨

대륙별 성과[2)]

성과 유형에 무관하게 '아시아(대표문화 활동 68.5%, 한국교류 활동 80.3%, 연수생 간 교류 활동 82.5%)' 국가에서 가장 많은 성과가 발생함

대륙별 성과 현황은 아시아 〉 아프리카 〉 유럽 〉 남미 〉 북중미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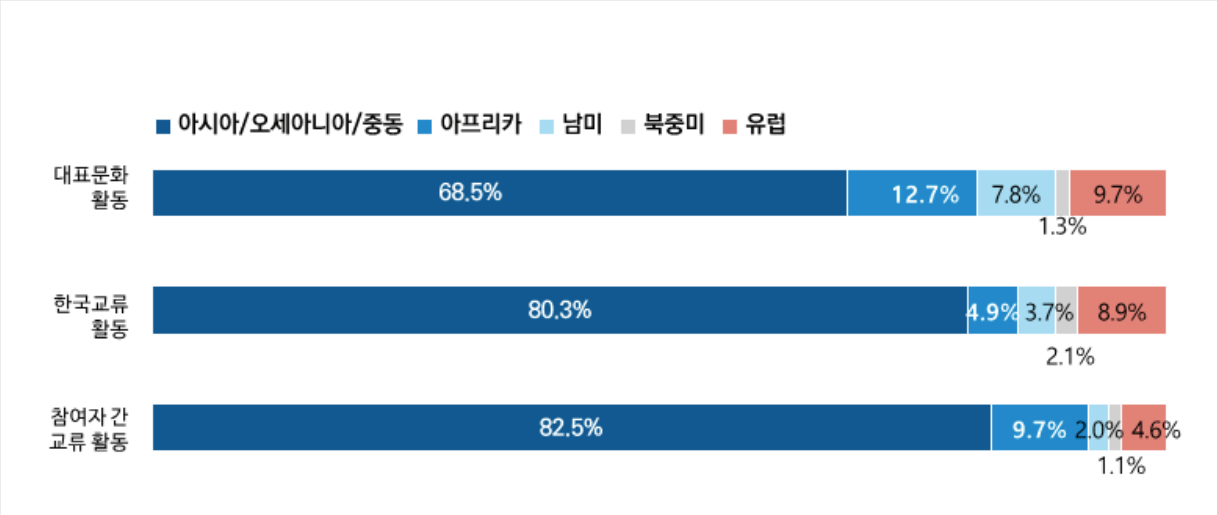
〈표Ⅱ-4〉 대륙별 성과 활동 발생 현황

(Base: 전체 성과 사례 수, 단위: 건, %)

구분	대표문화 활동		한국교류 활동		참여자 간 교류 활동	
전체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1,373	100.0%	427	100.0%	349	100.0%
아시아/오세아니아/중동	941	68.5%	343	80.3%	288	82.5%
아프리카	174	12.7%	21	4.9%	34	9.7%
남미	107	7.8%	16	3.7%	7	2.0%
북중미	18	1.3%	9	2.1%	4	1.1%
유럽	133	9.7%	38	8.9%	16	4.6%

[그림Ⅱ-8] 대륙별 성과 활동 발생 현황

(Base: 전체 성과 사례 수, 단위: 건, %)



2) 대륙별·국가별·사업 기관별 성과는 응답자 구성에 따른 편향 가능성이 있어, 해석 시 유의가 필요함

국가별 성과

국가별 성과는 상위 10위를 분석하였고, 유형별 차이가 다소 나타나는 편임

- 대표문화 활동은 베트남 〉 필리핀 〉 우즈베키스탄 〉 헝가리 〉 인도네시아 순
- 한국교류 활동은 베트남 〉 필리핀 〉 우즈베키스탄 〉 몽골 〉 헝가리 순
- 연수생 간 교류 활동은 네팔 〉 필리핀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우즈베키스탄 순

대부분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인 가운데 헝가리(유럽)는 모든 유형에서 상위 10위에 포함되었고, 탄자니아(아프리카)는 대표문화 활동에서 7위를 차지함

〈표Ⅱ-5〉 국가별 성과 활동 발생 현황(상위 10위)

(Base: 유형별 상위 10위 국가, 단위: 건, %)

대표문화 활동		한국교류 활동		참여자 간 교류 활동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베트남 171	12.5%	베트남 87	20.4%	네팔 64	18.3%
필리핀 135	9.8%	필리핀 44	10.3%	필리핀 54	15.5%
우즈베키스탄 95	6.9%	우즈베키스탄 39	9.1%	베트남 32	9.2%
헝가리 89	6.5%	몽골 37	8.7%	인도네시아 29	8.3%
인도네시아 82	6.0%	헝가리 31	7.3%	우즈베키스탄 17	4.9%
스리랑카 78	5.7%	인도네시아 23	5.4%	탄자니아 15	4.3%
탄자니아 55	4.0%	스리랑카 16	3.7%	몽골 13	3.7%
피지 50	3.6%	캄보디아 12	2.8%	태국 13	3.7%
캄보디아 46	3.4%	태국 12	2.8%	방글라데시 12	3.4%
몽골 44	3.2%	방글라데시 11	2.6%	헝가리 12	3.4%

사업 운영기관별 성과[3)]

참여자의 성과를 연수 운영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활동 유형에 따라 일부 차이가 확인됨

- 대표문화 활동은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 국립극장 〉 국립민속박물관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국립현대미술관 순
- 한국교류 활동은 국립극장 〉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 국립민속박물관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순
- 연수생 간 교류 활동은 국립민속박물관 〉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 국립극장 〉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순

〈표 II-6〉 사업 운영기관별 참여자 성과 활동 발생 현황(상위 10위)

(Base: 유형별 상위 10위 운영기관, 단위: 건, %)

대표문화 활동		한국교류 활동		참여자 간 교류 활동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유네스코국제무용협회 235	17.1%	국립극장 59	13.8%	국립민속박물관 75	21.5%
국립극장 160	11.7%	유네스코국제무용협회 57	13.3%	유네스코국제무용협회 46	13.2%
국립민속박물관 88	6.4%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25	5.9%	국립극장 30	8.6%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82	6.0%	국립민속박물관 24	5.6%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28	8.0%
국립현대미술관 81	5.9%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	4.7%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3	6.6%
춘천인형극제 77	5.6%	경남도립미술관 20	4.7%	트러스트무용단 14	4.0%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70	5.1%	국립중앙도서관 16	3.7%	국립국악원 10	2.9%
국가유산진흥원 52	3.8%	충북예총 16	3.7%	세계무술연맹 10	2.9%
한국예술종합학교 46	3.4%	트러스트무용단 16	3.7%	충북예총 10	2.9%
부산디자인진흥원 43	3.1%	국기원 ·한국국제교육개발협력원 ·한국예술종합학교 14	3.3%	국립현대미술관 ·한국관광공사 8	2.3%

3) 운영기관 중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문화행정가 연수에 해당함

2.3. 성과 활동 형태 요약

성과 유형에 무관하게 자국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음. 특히, 대표문화 활동과 참여자 간 교류 활동은 자국 활동 비율이 55% 이상으로 나타남. 반면, 귀국 후 한국교류 시에는 자국이 44.3%, 한국이 40.0%로 유사한 수준임

활동 분야 상위 3위는 전통예술, 음악, 무용으로 나타남

- 대표문화 활동 시에는 무용 18.9% 〉 음악 15.1% 〉 전통예술 14.7% 순
- 한국교류 활동 시에는 전통예술 18.5% 〉 음악 15.2% 〉 무용 14.3% 순
- 참여자 간 교류 활동 시에는 전통예술 26.4% 〉 무용 16.0% 〉 음악 13.5% 순

활동 형태 상위 3위는 창작, 기획, 교류, 연수 등으로 나타남

- 대표문화 활동 시에는 창작 31.5% 〉 기획 14.6% 〉 연수 14.1% 순
- 한국교류 활동 시에는 창작 33.7% 〉 교류 22.5% 〉 연수 14.3% 순
- 참여자 간 교류 활동 시에는 창작 37.5% 〉 연수 17.8% 〉 교류 17.5% 순

〈표Ⅱ-7〉 유형별 성과 활동 형태 요약

(Base: 유형별 활동 경험 건, 단위: %)

구분	대표문화 활동	한국교류 활동	참여자 간 교류 활동
활동자 사례수	**(n=231)**	**(n=144)**	**(n=112)**
전체 건	**1,373건**	**427건**	**349건**
활동 평균(건)	**5.9건**	**3.0건**	**3.1건**
활동 국가	**자국 59.9%** 한국 11.9% 그 외 28.2%	**자국 44.3%** 한국 40.0% 그 외 15.7%	**자국 55.9%** 한국 12.0% 그 외 32.1%
활동 분야(Top 3) *복수 응답	**무용 18.9%** 음악 15.1% 전통예술 14.7%	**전통예술 18.5%** 음악 15.2% 무용 14.3%	**전통예술 26.4%** 무용 16.0% 음악 13.5%
활동 형태(Top 3)	**창작 31.5%** 기획 14.6% 연수 14.1%	**창작 33.7%** 교류 22.5% 연수 14.3%	**창작 37.5%** 연수 17.8% 교류 17.5%

2.4. 성과 활동 사례(오픈 응답)

귀국 후 문화활동 관련 사업 활동 진행 시 “한국에서 배운 내용이나 경험을 현재(또는 과거의) 업무나 활동에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 개방형(오픈 응답)으로 질문함. 응답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분석하였는데, 본 요약 보고서에서는 주제별 핵심 내용만 제시하며, 다양한 사례는 전체 보고서 제3장(세부 조사 결과)에서 다룸

- **개인 역량 및 경력 발전**
- **기관·정책 수준의 변화**
- **지역사회 및 국제 문화 네트워크 확장**

2.4.1. 개인 역량 및 경력 발전

여러 응답자는 문화동반자 사업 경험을 경험의 출발점이자 전환점으로 언급하고 있음. 특히, 석·박사 과정 진학, 전공 선택, 연구 분야 설정 등 중·장기 경로와 연계된 사례가 나타남

한 응답자는 한국에서의 음악 예술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 전통음악 분야에서의 창작 및 교육 활동을 확장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나는 몽골 전통음악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음. 연주 기법을 약간 수정하였고, 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옴. 한국 음악 예술에서 배운 지식을 내 음악 분야에 적용함. … 또한, 이 프로그램은 내가 몽골 최대 교육기관에서 교사가 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2006년 문화전문가 연수 참여자, 국립극장, 몽골)

또 다른 응답자는 민속음악학 전공으로의 학문적 경로를 문화동반자 사업 경험과 직접 연결함

> “문화동반자 프로그램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2010년 말레이시아 국립극장(Istana Budaya) 산하에 말레이시아 최초의 전통 오케스트라 설립을 제안하였음. … 이후 문화동반자 프로그램과 한국에서의 연구에 영감을 받아 2013년에 석사 과정을, 2022년에 박사 과정을 민속음악학(Ethnomusicology) 분야에서 수행하였으며, 전통음악 교육과 문화 보존을 중심으로 연구함” (2007년 문화전문가 연수 참여자, 국립극장, 말레이시아)

더 나아가 예술가로서의 창작 방향과 정체성을 강화하기도 함

2.4.2. 기관·정책 수준의 변화

개인 역량의 증가는 다수의 경우 소속 기관과 정책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함. 도서관, 박물관, 문화행정기관, 저작권·무형유산 관련 국가 단위 조직에서 문화동반자 사업 경험을 제도 개선의 벤치마킹으로 활용한 사례가 두드러짐

한 응답자는 국립도서관 및 기록기관 경험자들은 한국 도서관의 구조, 디지털 시스템, 서비스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자국 시스템 개선에 활용함

> “한국국립도서관에서 근무하며 새로운 시대의 다양한 기술과 방안을 배우게 되었고, 이를 네팔 도서관의 도서 보존과 전시, 조직 방식 개선에 적용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음. … 도서관 시설을 개선하여 사용자 친화적이고, 더 많은 이용자가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2009년 문화전문가 연수 참여자, 국립중앙도서관, 네팔)

무형문화유산(ICH)과 문화정책 분야에서 문화동반자 사업은 법·제도 설계, 국가위원회 활동,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영향을 미침. 한 응답자는 한국의 무형문화재보호법을 직접 참고하여 국가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서술함

> “문화동반자 프로그램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매우 유익했으며, …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국가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 현재 한국의 1962년 무형문화재보호법을 벤치마킹하여 국가 무형문화유산법 제정을 위한 필요성 분석을 진행 중임” (2018년 문화전문가 연수 참여자, 국가유산진흥원, 탄자니아)

더 나아가 일부는 실행계획(action plan), 문제 트리 분석(problem tree analysis), 프로세스 매핑 등 구체적 기획 도구를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고 기재함

> “‘케이프코스트 초현대 음악 스튜디오 설립’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기 위해 문제 트리 분석(problem tree analysis)을 활용하여 관련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사용함.” (2024 문화행정가 연수 참여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가나)

위와 같은 사례들은 문화동반자 사업이 단순 연수 프로그램을 넘어, 문화·예술·정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관리 도구를 전파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2.4.3. 지역사회 및 국제 문화 네트워크 확장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자는 연수에서 배운 워크숍 기법, 참여형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 여성, 원주민 공동체,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예로,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의 사례에서는 태권도·전통무술·예술 교육을 통해 지역 청년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함

> “스리랑카의 예술가들과 새로운 공연 기법을 공유함. 무용 워크숍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현대적 실습의 새로운 방식을 지도함. 아시아 무용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스리랑카 무용단이 해외로 진출해 말레이시아 공연예술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끎.” (2011년 문화전문가 연수 참여,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스리랑카)

한편, 교육기관과 연계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림책, 공연예술 교육, 문화 축제 운영 사례도 확인됨

> “"나는 CPI 프로그램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두 권의 아동 도서를 출판하였음. 살아있는 유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CPI-EDN 프로그램에서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제작되었음.” (2023년 문화전문가 연수, 한국국제교육개발협력원, 페루)

또 한 응답자는 문화동반자 사업 경험을 계기로 몽골과 한국 간의 교육·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함

> “CPI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동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움. … CPI 종료 후, 몽골국립예술문화대학교(MNUAC)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 동국대학교, KACES, APCEIU 등 여러 한국 기관 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활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현재는 글로벌 시민교육(GCED)을 몽골 고등교육에 통합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음.” (2023년 문화전문가 연수, 한국국제교육개발협력원, 몽골)

이처럼 문화동반자 사업은 개별 기관 간 MOU, 공동 전시, 국제 워크숍, 공동 연구 등 지속적인 협력 인프라의 형성과 확장에 기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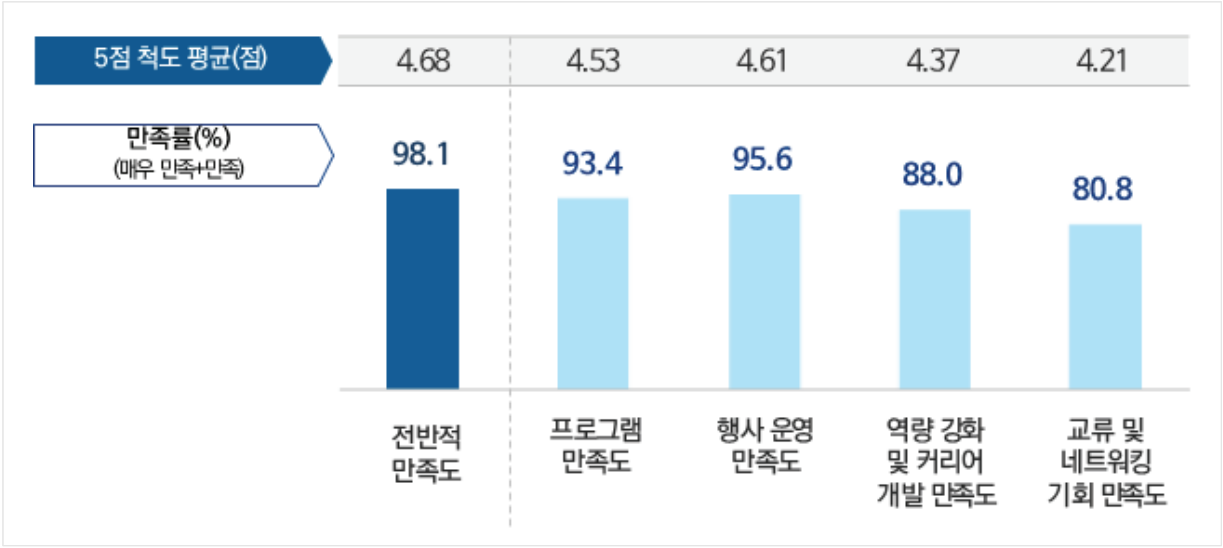
3. 문화동반자 사업 만족도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시 전반적 만족률(%)은 98.1%로 거의 100%에 가깝게 평가됨. 특히, '행사 운영' 만족도가 95.6%(4.61점)로 가장 높고, '교류 및 네트워킹 기회' 만족도는 80.8%(4.21점)로 세부 요소 중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참여 이후 사후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률은 60.9%로, 참여 만족도에 비해 다소 낮으나 과반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사후 서비스 중 '교류 및 네트워킹 기회 만족도'(66.2%, 3.84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올해부터 추진되는 신규 사업을 통해 교류 활성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사후서비스: 사업계획/액션플랜 이행에 대한 후속지원, 온라인/오프라인 동창회, 정보제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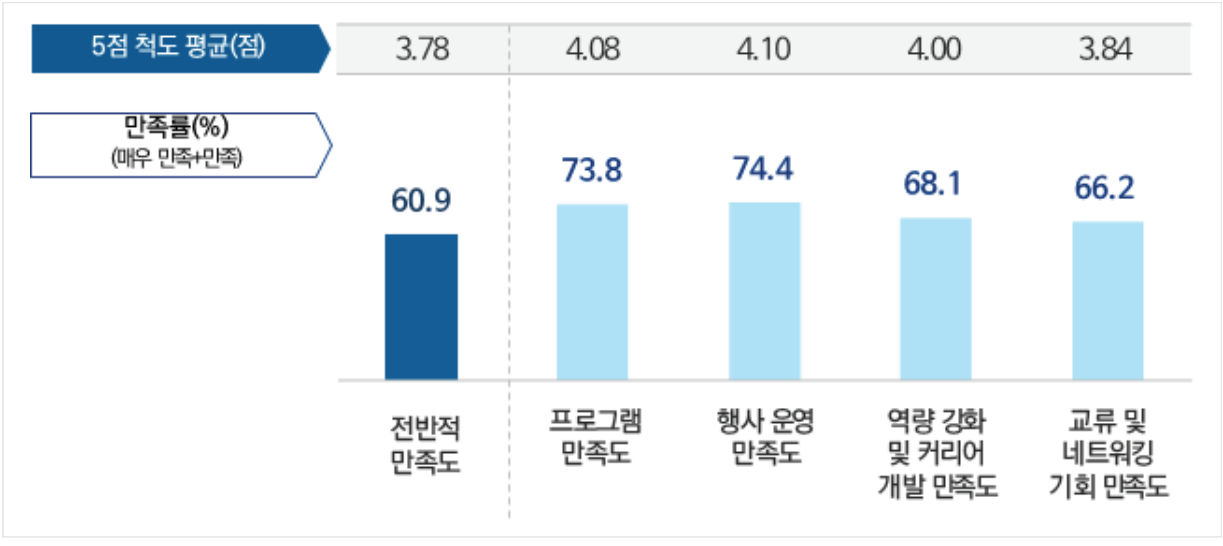
[그림Ⅱ-9]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만족도

(대상: 무응답 제외 전체(n=317), 단위: %)



[그림Ⅱ-10]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이후 사후 서비스 만족도

(대상: 무응답 제외 전체(n=317), 단위: %)



4. 한류 교류 현황 및 네트워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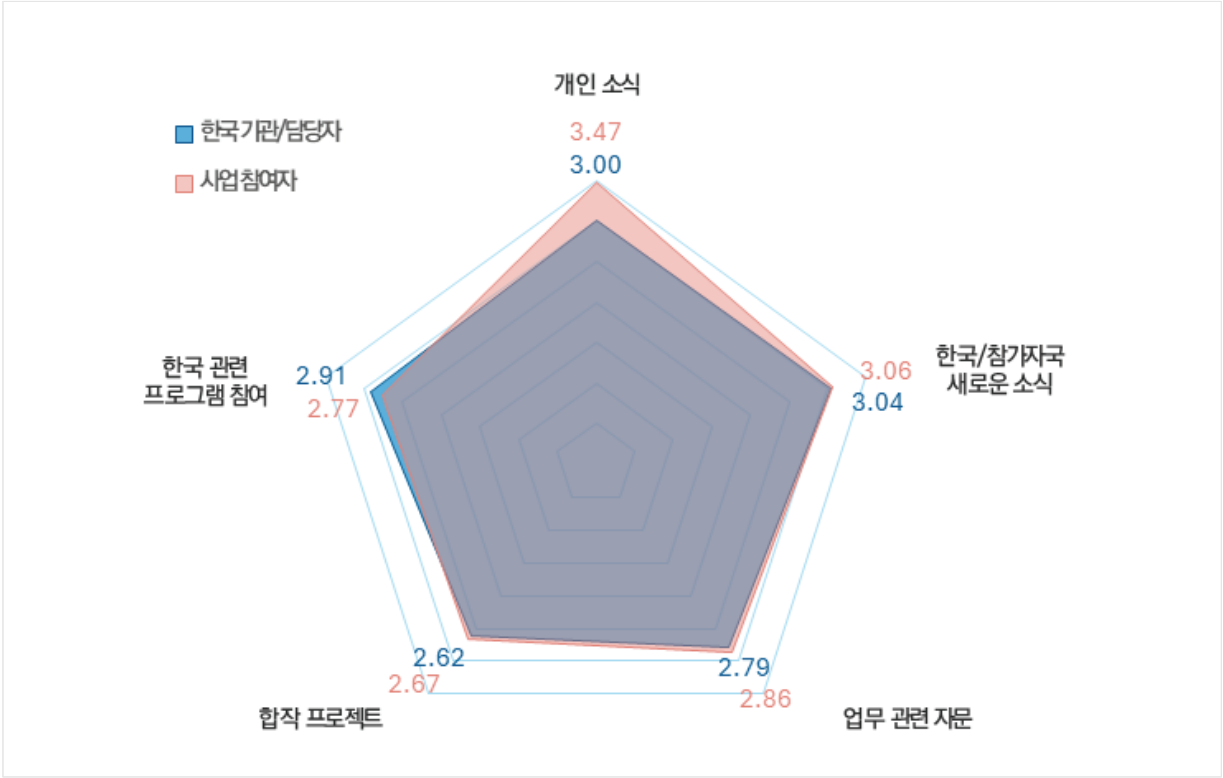
4.1. 문화동반자 사업 이후 교류 현황

문화동반자 사업 이후 교류 현황은 한국 기관·담당자와 사업 참여자 간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교류 대상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두 그룹 모두 '개인적인 소식 업데이트를 위해 연락 유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한국 기관·담당자 3.00점, 사업 참여자 3.47점). 반면, '합작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연락 유지'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한국 2.62점, 참여자 2.67점)

[그림Ⅱ-11] 문화동반자 사업 이후 교류 현황

(대상: 전체(n=328), 단위: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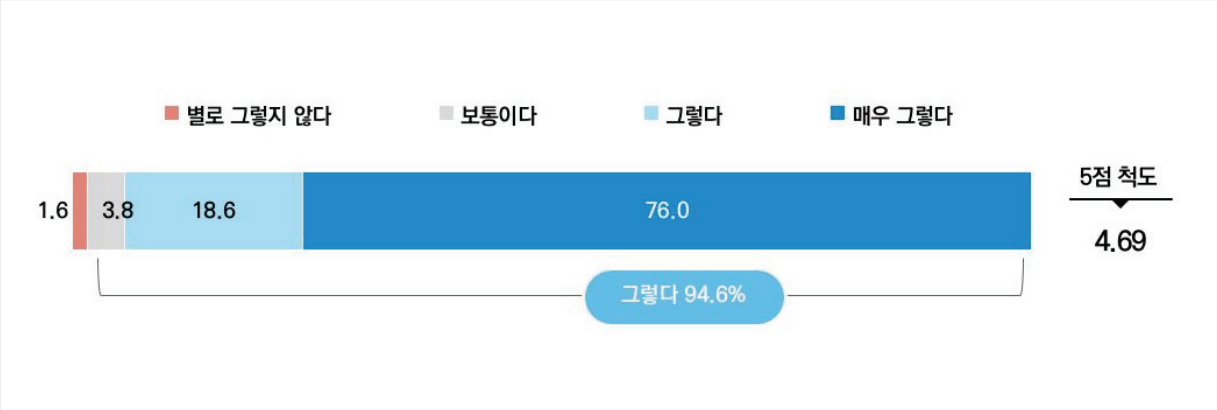
4.2. 향후 한국과의 협력 또는 교류 활동 참여 의향

향후 한국과의 협력 또는 교류 활동(문화동반자 사업 외 전체)에 대한 **참여 의향은 94.6%**(매우 그렇다+그렇다)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연수 참여 연도가 최신이거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참여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Ⅱ-12] 향후 한국과의 협력 또는 교류 활동(본 사업 이외) 참여 의향

(Base: 무응답 제외 전체(n=317), 단위: %)



〈표Ⅱ-8〉 향후 한국과의 협력 또는 교류 활동(본 사업 이외) 참여 의향

(Base: 무응답 제외 전체(n=317), 단위: %)

구분		사례수	세부 결과					긍/부정		척도 평균 (점)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참여 의향 없다 (①+②)	참여 의향 있다 (④+⑤)	
전체		**(317)**	**0.0**	**1.6**	**3.8**	**18.6**	**76.0**	**1.6**	**94.6**	**4.69**
연수 참여 연도	2005-2009	(57)	0.0	3.5	7.0	28.1	61.4	3.5	89.5	4.47
	2010-2014	(58)	0.0	3.4	8.6	25.9	62.1	3.4	87.9	4.47
	2015-2019	(82)	0.0	1.2	2.4	14.6	81.7	1.2	96.3	4.77
	2020-2024	(120)	0.0	0.0	0.8	13.3	85.8	0.0	99.2	4.85
성별	남성	(154)	0.0	0.6	3.2	21.4	74.7	0.6	96.1	4.70
	여성	(163)	0.0	2.5	4.3	16.0	77.3	2.5	93.3	4.68
연령대	20대	(11)	0.0	0.0	0.0	18.2	81.8	0.0	100.0	4.82
	30대	(110)	0.0	0.9	1.8	16.4	80.9	0.9	97.3	4.77
	40대	(146)	0.0	2.1	4.1	16.4	77.4	2.1	93.8	4.69
	50대 이상	(50)	0.0	2.0	8.0	30.0	60.0	2.0	90.0	4.48

4.3. 한류 교류 전문가 네트워크 사업 구축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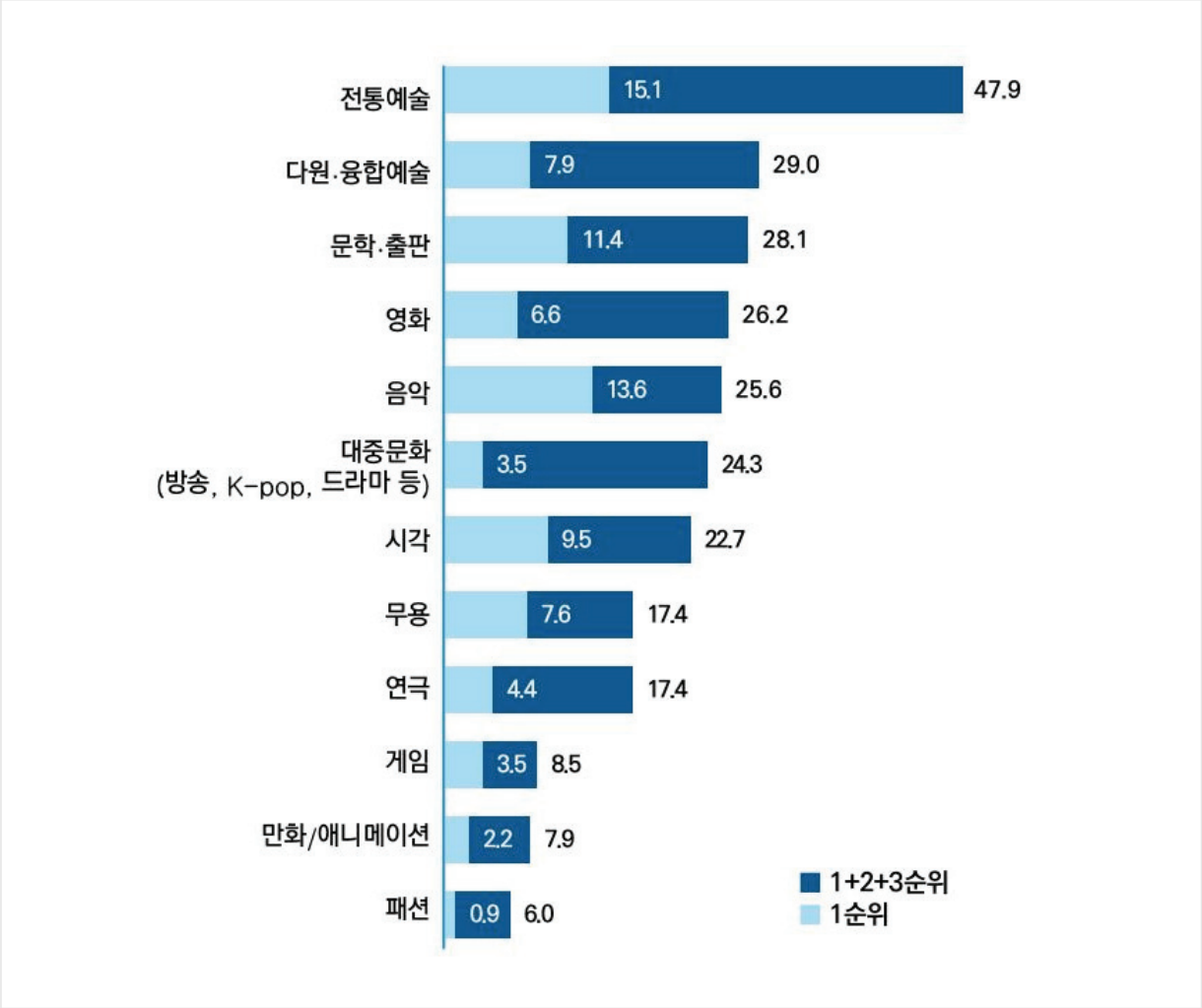
한국문화 교류 관련 관심 분야

한국문화 교류와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야는 1+2+3순위 기준 **'전통예술'이 47.9%**로 1위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다원·융합예술'(29.0%), '문학·출판'(28.1%), '영화'(26.2%), '음악'(25.6%) 순으로 나타남

반면 1순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전통예술'(15.1%)이 가장 높지만, 다음으로는 '음악'(13.6%), '문학·출판'(11.4%), '시각'(9.5%) 순으로 나타나 종합순위와는 다소 차이를 보임. 이는 1순위가 응답자의 정체성이나 전문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반면, 다중순위는 다양한 보조 관심사와 공통 관심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두 기준에서 다른 선택 패턴이 도출된 것으로 해석됨

[그림 II-13] 한국문화 교류 관련 관심 분야

(Base: 무응답 제외 전체(n=317), 단위: %, 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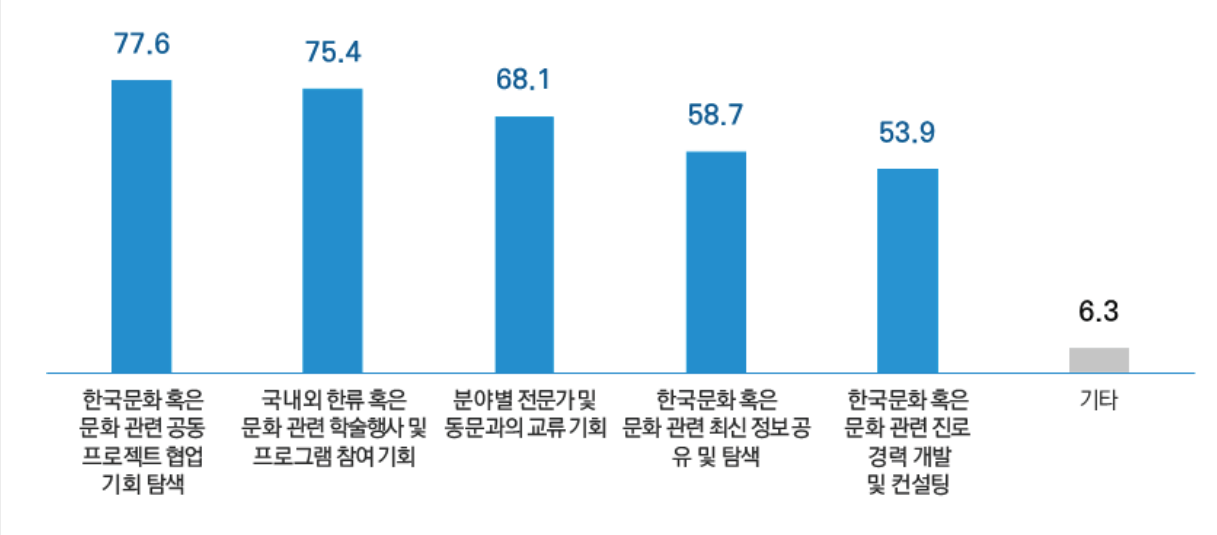


한국문화 관련 희망 교류 내용(복수 응답)

한국문화 관련 희망 교류 내용으로는 '한국문화 혹은 문화 관련 **공동 프로젝트 협업 기회 탐색'이 7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국내외 한류 혹은 문화 관련 학술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 기회'(75.4%), '분야별 전문가 및 동문과의 교류 기회'(68.1%) 순으로 나타남

[그림Ⅱ-14] 한국문화 관련 희망 교류 내용(복수 응답)

(Base: 무응답 제외 전체(n=317), 단위: %, 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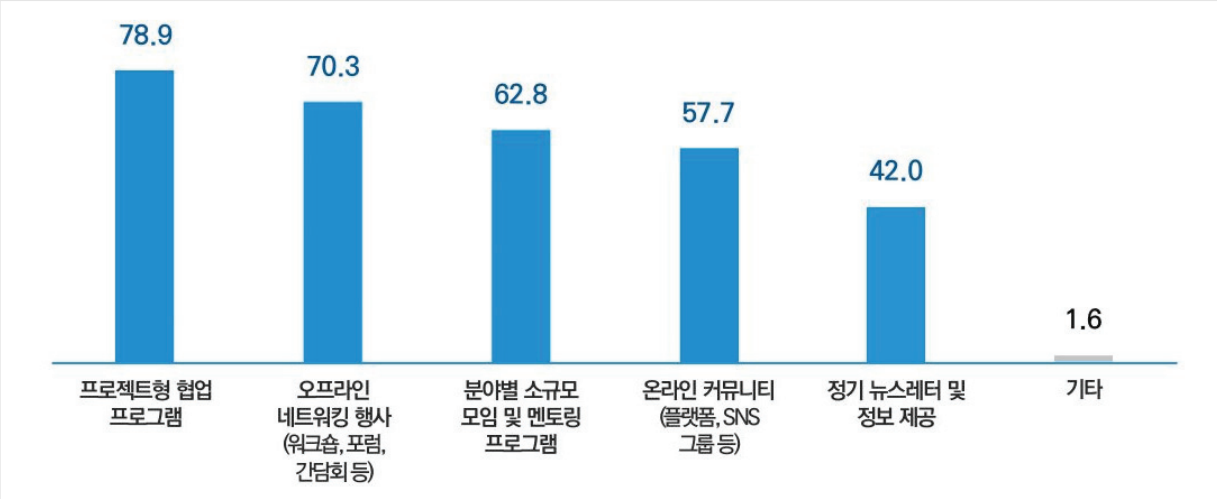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시 선호 방식(복수 응답)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시 선호 방식은 교류 내용과 동일한 **'프로젝트형 협업 프로그램'이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오프라인 네트워킹 행사'(70.3%)로 확인됨

[그림Ⅱ-15]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시 선호 방식(복수 응답)

(Base: 무응답 제외 전체(n=317), 단위: %, 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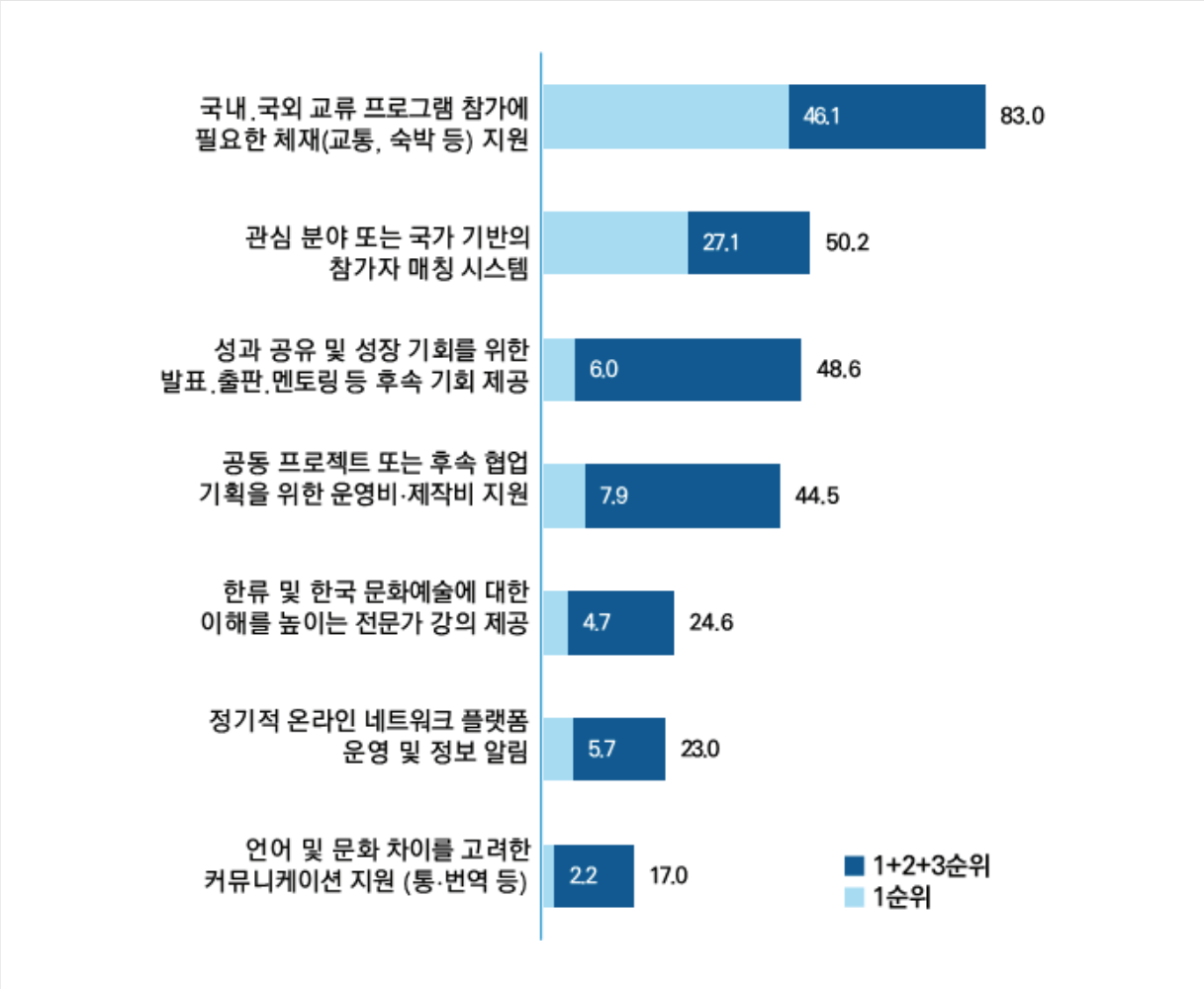
문화교류 네트워크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필요 지원 사항

문화교류 네트워크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필요 지원 사항으로는 1+2+3순위 기준 '국내, 국외 교류 **프로그램 참가에 필요한 체재(교통, 숙박 등) 지원'이 83.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참여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전적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함

그다음으로는 '관심 분야 또는 국가 기반의 **참여자 매칭 시스템'(50.2%)**, '성과 공유 및 성장 기회를 위한 발표, 출판, 멘토링 등 **후속 기회 제공'(48.6%)**, '공동 프로젝트 또는 후속 협업 기획을 위한 **운영비·제작비 지원'(44.5%)**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16] 문화교류 네트워크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필요 지원 사항

(Base: 무응답 제외 전체(n=317), 단위: %, 1+2+3순위)



제3장

시사점

1. 결론 및 시사점

1.1. 사업 성과: 지난 20년, 무엇을 남겼고 무엇이 확장되었는가?

지난 20년 문화동반자 사업은 단순한 초청 연수를 넘어 개인의 성장에서 국가적 자산으로 참여자(개인)→기관(조직)→국가(네트워크)로 이어지는 3단계 성과 확산 모델을 증명하였음

구분	내용
사업 효능감	▪ 참여자의 전반적 만족도 98.1%에 달하며, 향후 협력 의향 94.6%로 특히 젊은 연령층일수록 만족도 및 향후 협력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음 ▪ 이러한 압도적인 수치는 이 사업이 단순 시혜적 지원을 넘어 참여자에게 실질적 성장과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했음을 시사함
질적 변화 확산	▪ 참여자들은 승진(직위 승진 46.7%) 등의 개인적 경력 개발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제도화할 수 있는 경험 자산으로 전환함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결정 요인 분석 결과, '문화 관련 담당자와의 교류·협업·커뮤니케이션 역량 제고'가 44.5%로 가장 높았던 반면, 1순위만 놓고 보면 '문화기획·운영 역량 강화(26.2%)가 가장 중요한 참여 요인으로 확인됨. 이는 사업 참여자가 직무 역량 강화뿐 아니라 국제적 협업 경험 및 네트워킹을 중시하는 것을 보여줌

개인 수준의 변화

참여자들은 디지털 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공연예술, 도서관·기록정보, 저작권·문화정책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전문성이 강화되었다고 응답함. 또한 학위 과정 진학, 직위 승진, 진로 전환 등 경력 개발에 실질적 영향을 받았다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기도 함. 예술가·기획자 집단에서는 창작 방향, 작업 주제, 직업적 정체성의 재정립과 같은 질적 변화도 관찰됨

기관·정책 및 업무 수준의 변화

일부 응답자들은 귀국 후 도서관·박물관·문화기관에서의 운영 방식 개선, 서비스 품질 제고, 디지털 전환 추진 등 구체적 변화를 도출했다고 언급함. 특히 무형문화유산, 저작권, 문화정책 분야에서는 한국 사례를 참조한 제도 설계 또는 신규 사업 개발이 진행되었다는 응답이 확인됨. 더불어 실행계획, 문제분석, 프로세스 매핑 등 연수 과정에서 학습한 기획·관리 도구가 일상 업무로 정착되었다는 점도 특징적임

지역사회 및 국제 교류 수준의 확산

청소년·여성·원주민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전시·축제 확대 등 지역 기반 문화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응답이 나타남. 또한 영화제, 공연예술 축제, 학술 교류 등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의 추진으로 이어지는 등, 도시·지역 단위의 문화교류·협력 확장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줌. 일부 응답에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무형문화유산 등 국제 프레임과의 연계 전략을 수립하는 등 구조적 변화를 촉발한 사례도 확인됨

한계 및 2025 개편 사업의 필요성

한편, 응답자들은 후속지원 부족, 재정적 제약, 네트워크 유지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을 언급하기도 함. 이는 문화동반자 사업이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동문 네트워크 운영, 후속 사업 참여 기회, 공동 프로젝트 지원 등 후속 구조의 체계화가 중요함을 시사함

1.2. 지속가능성의 위기 진단 : 왜 네트워크는 단절되는가?

위와 같이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귀국 후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데에는 명확한 구조적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왜 그들은 지속해서 한국과 교류가 어려운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구분	내용
공식 채널의 실종	▪ 교류 단절의 가장 큰 원인은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닌 공식적 후속 교류 채널의 부재(36.2%)였음
재원 및 기회 부족	▪ 사후 서비스 만족도는 60.9%, 세부 항목 중 '교류 및 네트워킹 기회 만족도'(66.5%)가 가장 낮아 사후 교류 활성화에 대한 구조적 지원 필요성 시사함 ▪ 현지에서 협력 사업을 지속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협력 네트워크 부족이 25.7%, 활동 자원 부족이 23.0%로 나타남

이 밖에도 개인사정 15.9%, 담당자 교체 등으로 인한 단절 13.0%, 물리적 거리 및 시차 제약 12.6%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제도적·물리적 네트워크 유지 기반의 부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확인되기도 함

귀국 후 문화 관련 활동을 지속하지 못한 이유로는 협력 기관·전문가 네트워크 부족(25.7%), 활동 자원 부족(23.0%), 개인적 여건의 한계(21.6%) 등이 제시됨. 즉, 현지에서 후속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자원·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이 주요 제약으로 작용함

1.3. 미래 비전: '연수'에서 무엇으로 나아갈 것인가?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단순한 교육이 아닌 연결과 기회로, 무엇을 배웠는가를 넘어 누구와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함

〈한류 교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①설문조사 응답이 전통예술 분야 참가자 비중이 높아 전통예술 중심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특정 장르에 한정하기보다, 음악·문학·시각·융합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다분야·융합형 프로그램으로 확장·설계할 필요가 있고, ②프로젝트형 협업과 온·오프라인 네트워킹을 결합하여 공동 프로젝트–행사 참여–성과 확산으로 이어지는 참여 경로를 구축하며, ③ 체재비·매칭 시스템·멘토링·소규모 프로젝트 지원 등으로 장기적인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문화동반자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성과와 네트워크를, 개편된 한류 교류 전문가 네트워크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한류 교류의 다분야 포괄 및 모듈형 트랙

참여자의 폭넓은 관심사와 전문성을 충족시키고 협력 가능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구성이 필요한데, 조사 결과 한국문화 교류에 대한 관심 분야는 1+2+3순위 기준 '전통예술'이 가장 높았으며, '다원·융합예술', '문학·출판',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장르가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1순위 기준에서는 '전통예술' 다음으로 '음악', '문학·출판', '시각예술'이 상위권을 차지하여, 응답자의 핵심 전문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선택과 보조 관심사를 포함한 다중 선택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개편 사업이 전통예술을 포함하되, 음악·문학·시각·융합예술 등 다분야를 포괄하는 트랙·모듈형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참여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 가능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협업 기반의 연수 내용 강화

한국문화 관련 희망 교류 내용으로는 '공동 프로젝트 협업 기회'와 '학술행사·프로그램 참여', '분야별 전문가 및 동문과의 교류'가 모두 높게 나타났고, 네트워크 구축 방식 역시 '프로젝트형 협업 프로그램'과 '오프라인 네트워킹 행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사업에 대해 바라는 점을 종합한 결과, 참여자들은 그동안의 문화동반자 경험을 바탕으로, 개편 사업이 동문 재방문·공동 프로젝트·멘토링·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플랫폼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순환적인 협력 구조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장기적·순환적인 협력 생태계 조성 및 재정 지원 체계 구축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필요 지원 사항으로는 체재비(교통·숙박 등) 지원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관심 분야·국가 기반 매칭 시스템', '발표·출판·멘토링 등 후속 기회', '공동 프로젝트 운영비·제작비 지원'이 뒤를 이음. 이는 개편 사업이 프로젝트–행사–네트워킹–성과 공유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매칭·후속 지원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줌

또한 오픈 응답에서 체재비·연구비·제작비 등 현실적인 재정 지원, 분야·지역별 매칭, 정기 뉴스레터와 정보제공, 공정한 선발과 다양한 분야·연령·지역을 포용하는 설계 등을 제안하며, 2025년 이후 사업이 단발성 연수가 아니라 **"동문과 함께 설계하는 한류 교류 전문가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함

문화동반자 20년 사업 성과 분석 및 한류 교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사업 방향 조사 (요약 보고서)

〈기획·연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교류기반본부 국제협력팀

〈조사시행기관〉

㈜리서치랩

※ 본 조사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한류 교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통계 조사 및 성과 분석을 위탁받아 수행되었습니다.